"21세기 한국불교 기조 구축…법제도 개선으로 완성"

■ '자성과 쇄신 결사' 선속 기획 ② 결사 2년, 성과와 종단의 변화

종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17일 제2기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에 도법스님을 임명하면서 결사추진본부는 다시 2년간 순항하게 됐다. 이에 본지는 종단차원의 첫 결사인 자성과 쇄신 결사의 지난 2년간 행적을 추적해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, 앞으로 로 새로 결사가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보는 기획을 4회에 걸쳐 연속으로 게재한다.

"우리 종단 종헌의 초석이 되는 쇄신결사는 원만히 성취돼야 한다. 이것은 단순한 선언적 쇄신결사가 아니라 실천적인 쇄 신결사로 발전해서 공감대 고양과 신뢰와 존경을 수 있도록 빠를 하는 것고 의 자정으 구구하게 결사를 마무리 하고 2년 이내에 종헌종법에 기초한 결사를 마무리 하고 2년 이내에 종헌종법에 기초한 결사를 마무리 하고 2년 이내에 종헌종법에 기초한